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유일한 섬 울릉도는 5각형 모양을 한 화산섬이다. 해발 984m의 성인봉을 중심으로 급경사로 이루어진 섬으로 나리분지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평지가 없다. 울릉도 주민의 주생활터전인 도동과 저동 등 주요 포구의 사정도 마찬가지. 여객터미널을 중심으로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시골 어촌의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한다.

지형적인 특성으로 울릉도에는 길게 펼쳐진 해안의 백사장이나 완만한 해수욕장, 시원스럽게 난 해안도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최근에서야 거친 해안선을 따라 꼬불꼬불 형성된 해안도로가 완공되어 그나마 섬 일주관광이 가능해진 상태다.

그래서 울릉도 섬 일주는 관문인 도동에서 차량을 이용한 일주관광이나 유람선을 타고 구경하는 해상관광으로 크게 나뉘어 진다. 일주도로를 따라 일주하든 유람선을 타고 해상

관광을 하든 모두 빼어난 울릉도의 자연과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지만 기괴한 형상의 해안선과 기암괴석을 보다 가까이서 자세히 구경하기에는 역시 유람선을 타는 것이 좋다.

유람선 관광은 울릉도의 관문인 도동을 출발해 사동, 통구미, 남양, 구암, 학포, 태하 등 순으로 섬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도동으로 돌아오는 3시간 코스를 가리킨다.

정겨운 트로트가 울려 퍼지는 유람선에 몸을 싣고 갈매기떼를 뒤로 한 채 길푸른 동해바다를 가르며 가는 기분은 무척 상쾌하다. 우뚝 솟은 성인봉의 거친 산세가 한 눈에 들어오고 꼬불꼬불한 해안선을 따라 독특한 모양의 바위, 절벽들이 관광객을 반긴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날씨에 따라 산봉우리가 숨바꼭질하듯이 숨었다 나타나기를 반복하며 유람선 관광은



본격적인 시작을 맞는다.

유람선 관광 인기

울릉도 유람선 관광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공암이다.

바위 한가운데 구멍이 난 모습이 멀리서 보면 마치 코끼리 바다가 한가운데에 긴 코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여 코끼리 바위라고도 한다. 더욱 가까이서 보면 돌을 차곡차곡 쪼개어 놓은 듯 일정한 배열로 이루어져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코끼리의 코와 몸통 사이로 난 구멍은 마치 터널처럼 뚫려 있어 그 사이로 유람선이 지나 다니기도 한다. 유람선이 코끼리 바위를 잘 조망할 수 있는 곳에서 멈추어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물론 공암에 다가가기 전부터 안내방송을 통해 공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북면 석포 앞바다에 위치한 삼선암은 육지에서도 봐도 기

이하기 짝이 없는데 바다쪽에서 보면 더욱 신비롭다. 맑은 물과 빼어난 경치에 빠진 세 선녀가 하늘로 올라갈 시간을 놓쳐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사서 바위로 변했다는 전설과 기이한 모습을 바다 속에 감추고 있다. 2개의 바위는 형제처럼 나란히 서 있으며 그 사이로 소형 선박이 지나다니기도 하며, 다른 하나의 끝이 가위모양이라 하여 가위바위라고도 한다. 역시 울릉도 3대 절경 중 제1경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저동항에서 동북방향으로 약 5km 해상에 위치한 관음도는 각새가 많이 서식했다고 해서 일명 각새섬이라고도 불려진다. 높이 14m의 천연동굴 2개가 뚫려 있는데 관음쌍굴이라고 한다. 굴내의 석주와 천장의 기암은 천하절경으로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 마시면 장수한다고 한다.

유람선 관광의 마지막 코스는 저동 촛대바위다. 동해안 최

대의 어업전진기지 저동항에 인접해 있는 촛대바위는 텅빈 바다에 덜렁 오뎅한 바위 하나 만이 솟아 있어 장관을 이룬다. 특히 저동항 방파제와 촛대바위를 배경으로 솟아오르는 일출은 울릉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손꼽힌다.



울릉도의 관문 도동

유람선이 정박하는 도동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여러 곳의 명소가 있는데 도동 약수공원이 대표적이다. 울릉도의 관문인 도동항에서 약 300m 떨어진 산기슭에 위치하는 약수공원에는 도동약수를 비롯해 독도박물관, 향토사료관, 케이블카 등이 있다.

도동약수는 예로부터 빈혈, 소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토 류탄산철 성분의 약수로 강한 탄산성분과 철 성분 탓에 마시

기에는 다소 불편하다. 시원하기는 하지만 느끼하면서 톡 쏘는 맛이 김빠진 사이다맛이라고나 할까. 다만 위장에 좋다고 그냥 벌컥벌컥 마실 뿐이다.

공원 아래에는 울릉도를 지킨 안용복 장군의 충혼비, 청마 유치환님의 시비 등이 있어 공원으로서의 품위를 더한다. 또 울릉도의 민속 유물과 선조들의 생활상을 전시한 향토사료관도 있고, 독도에 관련된 각종 역사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독도박물관이 관광객을 맞는다.

지난 99년부터 운행을 시작하는 케이블카는 약수공원에서 망향봉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488m, 왕복식으로 36명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선 망향봉에서는 도동, 사동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날씨가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독도가 관측된다. 울릉도에는 쉬리벤치로 손꼽힐 만큼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연출한다.



오징어와 울릉약소

울릉도 하면 오징어를 꼽는다. 청정해역에서 갓 잡아 올려 선선한 바닷바람에 말려서 딱딱하지 않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단백질, 회분, 칼슘, 인, 비타민, 무기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고기보다 더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는 것이 울릉도 오징어의 특징이다.

울릉약소 역시 오징어와 함께 울릉도의 별미로 잘 알려져 있다.

울릉약소는 울릉도에서만 서식하는 섬바다라는 목초를 즐겨 먹고 자라 좋은 육질과 독특한 맛을 자랑한다. 육질이 연하고 맛이 담백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다. 밀반찬으로 울릉도 자연 산나물이 함께 곁들여져 식욕을 살린다. ㉸

실용정보

교통-울릉도로 가려면 포항이나 묵호에서 떠나는 정기 여객선을 타야 한다. 묵호에서 약 2시간 50분, 포항에서 3시간 소요된다. 요금은 묵호 4만2천원, 포항 5만1천원. 포항여객터미널 ☎054-242-5111, 묵호여객터미널☎033-531-5891

울릉도 내의 교통수단으로는 시내버스 택시 그리고 전세버스가 주류를 이룬다. 관광객이 이용하기에는 시내버스보다는 택시나 전세버스가 편리하다. 섬일주를 위해 전세를 낼 경우 대당 8만원 선. 울릉관광 ☎054-791-0066

독도유람선-도동항에서 독도까지 정기 여객선을 운항한다. 이전까지만 해도 독도에 정박하는 것이 아니라 독도를 한바퀴 돌아오는 선회관광이었으나 최근부터 상륙도 허용되고 있다. 1일 2회 왕복, 매일 2회 출항 오전 8:00시, 오후 2시30분, 소요시간 3시간. 왕복 37,500원. 독도관광 ☎054-791-8111~2

울릉 약소 불고기-약소불고기 1인 15,000원 정도, 양이 많은 편이다. 향우촌(054-791-8383), 압소함마리식당(054-791-4440), 돼지함마리식당(054-791-0951)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